

朝鮮疆域誌下



32336

를封하야許國公을삼고乞々仲象으로震國公을삼고其罪를赦하되比羽는受命
치안커늘武后가玉鈴衛大將軍李楷固와中郎將索仇를命하야比羽를擊斬하다
是時에仲象은已死한지라其子祚榮이殘痕를引하고遁去하거늘楷固가窮躡하
야天門嶺을度한지라祚榮이高麗靺鞨兵으로써拒하니楷固가敗還하다於是에
契丹이突厥과附合함으로王師의道가絶하야能히討치못한지라祚榮이比羽의
衆을卽並하고荒遠함을恃하야乃建國하고震國王이라自號하고突厥에使를
遣하야好를交하니地方이五千里오戶가十餘萬이러라

『唐書』睿宗先天中에使를遣하야祚榮을拜하야渤海王을삼으니是로부터靺鞨
의號를去하고渤海라專稱하니라 ○『鏞』按太白山은我邦의白頭山이오奧婁河
는今の額敦山에서二河가出流하야西으로混同江에入하니其緯度を查하면바로
營州東二千里에在하고仲象立國의初에白山의東에據하얏더니其子祚榮이暫遁
旋還하야白山의東은離치아니함으로其後嗣王이土地를廣拓하야西으로夫餘에
極하고瀋州에至하니今の太子河以南今遼陽 靺河以西今鳳凰城地의渤海의跡을概及치

못하나渤海疆域을論하는者는맛당히此를先知할지로다 ○『唐書百濟傳』百濟
가既亡하며其地가新羅와渤海의分한바一되니라 ○『崔致遠上太師侍中狀』句
麗의殘孽이類聚하야北으로太白山에依하야國號를渤海라하다 ○『金富軾地
志』句麗의地가渤海에入함이多하고新羅가또한其南境을得하야漢朔溟三州를
寘하다 ○『鏞』按唐書에渤海가百濟의地를得하얏다함은誤이라溫祚王初年에
疆域을劃定하야北으로俱河에至하고東으로走壤에極하얏스나其衰함에及하야
는漢水以北은失한지已久어늘況渤海의得한바는東으로嶺東의地에過치못한지
라上으로穩城으로부터下로襄陽에至하고西則薩水오以北은鴨江에至하기까지
疆域을삼앗스니百濟故地를엇지써得하얏스리오
其疆域를考견대오직我邦嶺東의地니其全體를得하야南北으로三千里에亘하니
라

『唐書』高麗亡에大抵가衆을率하고挹婁의東牟山地를保하니곳一營州東二千
里라南으로新羅에接하야泥河로써境하고東으로海에窮하며西는契丹까지城郭

을築하야居하니高麗遺殘의民이稍歸하니라 ○『鏞』按通典에營州의治는柳城縣에在하니東으로遼河에至하기四百八十里南으로海에至하기二百六十里니殷時에孤竹國이오周時에山戎地니今寧遠州北二百四十里에在한지라東牟山은旣是營州東二千里라云하니正是我白頭山東北으로今의額敦山이或其變名인가하노라 ○又按泥河는我江陵의北의泥川水니新羅慈悲王이何瑟羅人을徵하야泥河城을築하고又炤智王時에句麗靺鞨兵을泥河西에追擊이라함이即此地라渤海와新羅가旣히泥河로써界를삼았은즉襄陽以北은모다渤海의得한바되니라我邦의襄陽以北은蓋武后末年으로부터渤海에入하얏다가玄宗天寶以後에至하야鍊關以南이다시新羅의所有가된故로景德王十六年에朔庭郡今安邊泉井郡今德源과其屬縣을並하야其名號를改하고宋太宗時에至하야渤海가衰微함으로咸興以北은女眞에沒入하얏스니其間三百年은皆是渤海의地어는東國輿地書에渤海의說이都無하고但咸州가久히女眞의據한바되얏다하니또한疎忽치아니한가女眞의此를據함은百餘年에過치못하야高麗睿宗이尹瓘으로하야금攻取하야九

城을築하얏다가旋失하니라 見沃沮考

高王이旣卒하매武王이繼立하야登州를數犯하거늘新羅가承詔唐開元帝의詔하야其南部를擊하니其壤土가相接함이라

『唐書』開元中에黑水靺鞨의使가入朝하니帝가其地로써黑水州를建한대武藝渤海武王曰是必唐으로더부러腹背로我를攻코자함이라하고弟門藝를遣하야黑水를

擊케하거늘門藝가懼하야唐에歸한지라武藝가門藝의罪惡을暴하야誅함을請하더니其後十年에武藝가大將軍張文休를遣하야海賊을率하고登州를攻하거늘帝가門藝를馳遣하야幽州의兵을發하야擊케하고太僕卿金思蘭으로하야금新羅에遣하야兵을督하야그南을攻케하얏더니맛참大寒으로雪이丈餘를袤하매士卒의凍死가半에過함으로功이업시還하니라 ○『新羅史』開元二十一年景德王三十一年에唐이使를遣하야敎諭曰渤海靺鞨이外로蕃翰이라稱하고內로狡猾을懷하기로今에兵으로써罪를問코자하노니卿亦兵을發하야서로犄角의勢를作하라하다

하야其刺史韋俊을殺하니이에明皇이大怒하야內史高品何成行과太僕卿金思蘭
新羅人을命하야兵을發하야海를過하야攻討하다가冬은深하고雪은厚하야蕃漢이
寒에苦함으로廻軍함을勅命하니라 ○『新羅史』將軍金庾信이上表曰臣의奉한
마進止에臣으로하야金本國에節을執하야兵馬를發하야靺鞨을討除케하심이러
니蠢爾한夷俘는임의禍를悔한줄노計料하오니伏望陛下는臣의還國을因하야殊
音을再宣하시면必히其巢穴을傾하야此荒隅를靜케하오리다 ○『鏞』按此時에
遼薊의地는契丹의梗路인故로渤海의入寇도必히海를越하야登州를犯하고大唐
의罪를討함도또한海를越하야新羅에途를借함은自然한理라若渤海部落으로하
야金本來遼東에據하얏다면渤海가맞당히營平을直寇할지오大唐도또한遼東을
直討할지라海를越하며路를取하야이가리迂廻하얏슬가渤海가遼東에據치아임
이明瞭하고當時에新羅와渤海가泥河로境을劃하야隣比가됨으로반다시渤海의
南部를進擊케함이라

武王後에六王을更歷하야宣王이이에境宇를大開하니五京과十五府의設이備하니

라

『唐書』武藝의諡는武王이오欽茂의諡는文王武藝子이오華歟의諡는成王欽茂孫

이오嵩隣의諡는康王欽茂子이오元瑜의諡는定王嵩隣子이오言義의諡는僖王元瑜弟

이오明忠의諡는簡王言義弟인대言義가死하며從父仁秀가立하니그一四世祖野勃

은祚榮의弟라仁秀가能히海北諸部를討伐하야境宇를大開한지라死하며諡曰宣

王이라하다初에王이자조諸生을遣하야京師太學에詣하야古今制度를習識케함

으로遂히海東의盛國이되야五京十五府六十二州의地를有하니라 ○『鏞』按唐

書靺鞨傳에越喜虞婁의等이貞元中에德宗時唐에朝하얏스나其後는渤海에服屬하

야王會에參치못하얏다하니此로推하면仁秀의開拓한바는곳一越喜鎭利의等과

我邦西北의邊沃沮句麗의故地로서받서高麗王時에得하얏슴으로南으로新羅에

接함을得함이니라

肅慎故地로上京을삼으니曰龍井府라龍湖渤三州를領하니라

『唐書』天寶末에欽茂가上京을舊國三百里되는忽汗河의東에徙하고貞元時에